

현악단의 수석 지휘자로 취임했다. 2006-10년 포츠담 실내 아카데미 수석 지휘자 겸 예술 감독으로 활동했다. 그동안 취리히 톤할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네덜란드 필하모닉,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라이프치히 MDR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노버 북독일 방송 필하모닉, 자르브뤼켄 방송 교향악단,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명 오케스트라에 자주 초청되었다.

이 가운데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와의 함께한 쾰른 오페라 프로코피예프 '전쟁과 평화'(2011) 지휘는 그의 명성에 날개를 달았다. SONY 레이블에서 쇼스타코비치 작품을 녹음했으며 젊은 음악가의 지도,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드레스덴 필과의 관계는 198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7, 90, 94년에 첼로 객원 솔리스트를 역임했고 2004년에 처음 지휘를 맡았다. 그리고 11/12 시즌 수석 지휘자로 취임했다. 2013/2014 시즌에는 뮌헨 필, 요미우리 일본 교향악단, 쾰른 방송 교향악단,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스케줄을 밟고 있다.

#### 미하엘 잔데를링 어록

// 드레스덴 필에 수석 지휘자로 부임하기전 저는 솔로 첼리스트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처음 드레스덴 필을 지휘한 건 8년전의 일인데요. 전통이라는 의미에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악단으로 꼽히고 드레스덴 사운드를 기본으로 하는 특별한 악단입니다. 어둡고 풍부한 소리를 냅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감동을 자아내는 소리라고나 할까요. 어떤 지휘자도 드레스덴 필을 지휘하면 사운드에 놀랄 겁니다. 저 역시 먼저 소리에 압도됐고 전통을 함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 물론 전통만으로 특별한 소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드레스덴은 보헤미아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19세기 음악사에서, 보헤미안의 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드보르자크와 스메타나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리엔 깊이와 농도가 있습니다. 단순한 민족음악이 아니라 소리 자체의 깊이와 무게 그리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력을 갖고 있는 음악가들이 드레스덴 소재 악단에는 다수 있습니다. 드레스덴 필의 음색을 '독일 특유의 음색'(deutsche wunderHauch)으로 부르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독 시절 40여년 동안 드레스덴은 주변의 정치 상황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유럽이 세계화되는 동안 음악의 전통을 유지하는 드레스덴은 세계화에 무관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리의 독자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전통이란 것이 양날의 검입니다. 언제나 같은 연주 스타일을 답습하고 있으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루하거나 시시한 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드레스덴 필 단원들은 지금까지 구축된 주법을 지키는 대전제 속에서 개별 곡목의 가능성을 넓게 받아들여 주법의 디테일을 명확하게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 곡이 고전인가, 바로크인지, 근현대, 컨템퍼러리인지에 따라 주법의 디테일을 고민하면서 연주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고마운 것은 하드한 연습에도 단원들이 그것을 즐기면서 따라와준다는 것입니다. 중부 유럽의 음악 질서를 지난 20-30년간 풍미한 '본류 추구'의 경향이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 Principal conductor | Michael Sanderling

Born and educated in Berlin, Michael Sanderling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conductors of his generation. His 2005 debut conduct-

ing the Dresden Philharmonic marked the beginning of regular and close artistic collaboration with the tradition-steeped orchestra. At the beginning of the 2011/12 concert season Michael Sanderling was named Principal Conductor of the Dresden Philharmonic.

Sanderling has worked with many leading international orchestras including the Tonhalle-Orchester Zürich, Sinf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the Münchner Philharmoniker, the Sächsische Staatskapelle Dresden, the Konzerthausorchester Berlin, the Radio-Sinfonieorchester Stuttgart, the Gürzenich Orchester Köln and the Nederlands Philharmonisch Orkest.

In forthcoming seasons he will also give a series of important debut performances such as with the Gewandhausorchester Leipzig, the WDR Sinfonieorchester Köln, the Bamberger Symphoniker, the Yomiuri Nippon Symphony Orchestra, the Orchestre Philharmonique de Monte-Carlo, the National Philharmonic Orchestra Taiwan and Philharmonia Orchestra London.

Recent high points in his career include return engagements to conduct the Konzerthausorchester Berlin, the Radio-Sinfonieorchester Stuttgart, the NDR-Radiophilharmonie Hannover, the Orquesta Nacional de Porto, the Frankfurter Opern- und Museumsorchester, the MDR-Sinfonieorchester Leipzig and Tonhalle-Orchester Zürich. His conducting of Sergei Prokofiev's "War and Peace" at the Cologne Opera was met with the highest acclaim from press and public alike.

As Artistic Director and Principal Conductor of the Kammerakademie Potsdam, from 2006 to 2010 Sanderling performed at international concert venues and recorded several CDs with the ensemble, including the chamber symphonies of Dmitry Shostakovich on the SONY Classical label. In 2010 he founded "Skyline Symphony" in Frankfurt/Main - a collaboration of Europe's leading orchestra players who join together in performing special classical music concerts on the campus of the Goethe University geared to younger audiences in an easily accessible setting free of formal convention.

Michael Sanderling's early musical training was on the cello. After successfully participating as a cellist in several competitions (the ARD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Munich, the Johann Sebastian Bach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Leipzig and the Maria Canals Competition Barcelona), when only 19 Sanderling was engaged by Kurt Masur as principal cellist with the Leipzig Gewandhausorchester. Sanderling was subsequently also principal cellist of the Rundfunk-Sinfonieorchester Berlin for many years. He has made guest appearances as a cello soloist with top-flight orchestras throughout Europe and the US, including the Sinf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the Orchestre de Paris and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4중주  
체른,  
썼다.  
로 교  
교수

관현악  
악 필  
내 관